

남북경협 방향 재조정돼야

과열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국내 기업인의 방북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러한 무분별한 기업인의 방북이 경협을 확대하기 보다는 상호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남북경협의 방향이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방북기업 협의내용				
구분	기간	방문지역	주요협의내용	
쌍용	12.13~17	나진, 선봉	시멘트 합작사업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	
신원	1.10~17	평양, 남포	의류공장 설립 및 임가공 사업확대 사무소 설치	
삼성	1.11~16	나진, 선봉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 전자단지 건설, 사무소 설치	
대우	1.12~16	평양, 남포	남포공단 경공업 사업 투자 가전분야 투자	
한화	1.17~21	나진, 선봉	기간 통신망 건설 석유화학 가공분야 투자	
대동화학,영신무역	2.4~11	나진, 선봉	신발위탁가공사업	
L	2.26~3.4	평양	의류임가공 사업확대 전자제품 조립 임가공 사업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94년11월 정부의 1단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이후 쌍용 등 10개기업 47명이 북한을 방문, 북한당국자와 협력가능성을 논의하고 지금도 효성물산·제일제당 등 2개사가 북한을 방문중에 있으나 이들의 방북활동이 단순시찰이나 사업가능성에 대한 의향타진에 그쳐 실질적인 협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당국은 우리 방북기업인에게 실현성이 없는 대규모 합작사업을 제의하고 세밀한 검증도 없이 우선 합의부터 하자는 식으로 덤벼 실질적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나진·선봉지역 경공업분야 투자상담에서는 우리기업에 관련공장 가동을 위한 기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기술자들의 장기체류를 거부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됐을 때만 사무소설치를 허가하는 등 북측에만 유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 북한은 우리기업의 투자지역을 나진·선봉지역으로 국한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유향 노동력 및 설비를 활용할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위탁가공무역을 주로 요구하고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생산제품으로 상환하는 보상무역방식을 고집, 한국기업의 직접진출에 대한 거부감이 역력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1995/4/17>